

‘스키 샷별’ 여수 삼일중 강다현 “동계체전서 무조건 1등 하겠다”

‘스키 불모지’ 여수에서 다시 한번 동계체전 대관왕을 노리는 유망주가 있다. 스키 알파인 강다현(14·여수삼일중 2년)이 내년 전국동계체전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최근 총 32일간의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의 가을전지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강다현은 더욱 성장한 실력으로 이번엔 “무조건 1등을 하겠다”는 포부다.

강다현은 여수죽림초 6학년 때인 2022년 2월에 열린 제103회 전국동계체전에서 4관왕을 달성했던 스키 알파인의 ‘샷별’이다. 세부종목인 슈퍼대회전·대회전·회전과 이들 메달 종목을 합산한 복합 기록에서 모두 우승하며 총 4개의 금메달을 따냈다. 당시 강다현은 슈퍼대회전에서 28.08초, 대회전에서 56.17초, 회전 34.99초를 기록했다.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2020년 1월에는 제47회 전국학생스키대회와 제4회 웰리힐리파크 전국알파인스키대회에서 총 3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강다현은 빠른 속도감과 달릴 때 느껴지는 바람이 스키 알파인의 매력이라고 말한다. 어린 나이부터 각종 상을 휩쓸며 실력을 인정받은 강다현은 지

초등 때 전국대회 4관왕 등 두각을 나타내며 지난해 전남도 으뜸인재 선발 유럽서 가을전훈련 마치고 귀국 내년 2월 금메달 딸 준비 마쳐

난해 전남도 으뜸인재로 선발되기도 했다. 으뜸인재 선발은 강다현이 선수 생활을 하는 데 자긍심이 자 동기부여가 됐다.

강다현은 “지원금으로 이번 해에 전지훈련도 가고, 장비도 살 수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동계체육 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마땅치 않은 전남에서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들었다. 강다현은 국내 훈련이 가능한 겨울에는 여수에서 훈련으로 이동해 훈련하고, 그외 계절에는 해외로 나가 실력을 다졌다.

최근 강다현은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 총 32일간

의 가을 전지훈련을 끝내고 귀국했다. 지난여름에는 54일간의 노르웨이 훈련에도 참가했다. 지난해 어깨 수술로 인해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강다현은 올해 성적에 아쉬움이 많았다. 그는 두 차례의 전지훈련을 통해 내년 2월 열리는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다시 금메달을 따낼 준비를 마쳤다.

“영하의 날씨였는데, 설정도 좋고 훈련도 잘 됐다. 가족들이랑 영상통화도 많이 하고 같이 간 팀원들이랑 있으면서 재밌게 다녀온 것 같다.”

5살에 스키를 타기 시작해 어느덧 10년째인 지금, 강다현은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가며 훈련하고 있다.

강다현은 “어릴 때는 스키 탈 때 아무 생각 없이 타는 것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 커가면서 좀 진지해졌다. 그 전날 저녁에 정리해 뒀던 문제점들을 생각하면서 타고 있다”며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임한 덕분에 실력도 좀 나아진 것 같다. 3학년 때 따는 금메달은 당연한 거고, 2학년인 지금 꼭 금메달을 따겠다”고 말하며 당찬 모습을 보였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스키 알파인 강다현이 지난 10월 노르웨이 전지 훈련에 임하고 있다.

<전남스키협회 제공>

황희찬 리그 7호골...시즌 두 자릿수 공격포인트

골대 불운 아쉬움 딛고 PK 골 울버햄프턴은 풀럼에 2-3 패배

국가대표 공격수 황희찬이 골대 불운의 아쉬움을 털고 리그 7호 골을 터뜨렸으나, 소속팀 울버햄프턴(잉글랜드)은 경기 종료 직전 페널티킥을 헌납해 패배의 쓴맛을 봤다.

울버햄프턴은 28일 영국 런던의 크레이븐 코티지에서 열린 2023-2024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1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풀럼에 2-3으로 졌다.

마테우스 쿠냐와 투톱으로 선발 출격한 황희찬은 초반부터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전반 7분 알렉스 이워비에게 실점해 0-1로 뒤진 가운데 7분 후 페널티아크까지 질주한 황희찬은 수비 견제 속 기습적으로 오른발 중거리 슈트를 시도했는데, 골대를 강타해 아쉬움을 삼켰다.

전반 22분 쿠냐의 헤딩 골로 동점을 만든 울버햄프턴은 후반 14분 윌리안에게 페널티킥 골을 내줘 다시 1-2로 끌려갔다.

만회 골이 필요하던 시점 팀 내 최다 득점자인 황희찬이 해결사로 나섰다.

후반 28분 페널티아크 쪽에 공중볼 경합 끝에 공이 떨어지자 황희찬이 특유의 저돌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페널티킥으로 침투했다.

이 과정에서 풀럼 수비 2명과 경합한 황희찬은 몸싸움 끝에 넘어졌고, 주심은 비디오판독(VAR) 끝에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직접 키커로 나선 황희찬이 침착한 마무리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지난달 29일 열린 10라운드 뉴캐슬 유나이티드전(2-2) 이후 3경기 만에 나온 득점으로, 황희찬의 올 시즌 리그 7호 골이다.

이로써 황희찬은 EPL 득점 랭킹 5위로 올라서며 재러드 보언과 공동 3위를 이룬 대표팀 동료 손흥민(8골)을 바짝 추격했다.

리그컵 1골을 포함해 올 시즌 공식전에서 8골을 넣은 황희찬은 어시스트까지 2개를 올린 터라, 시즌 두 자릿수 공격포인트도 이날 함께 달성했다.

황희찬의 활약 덕에 승점 1을 챙기는 듯했던 울버햄프턴은 후반 추가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졌다.



울버햄프턴 황희찬이 28일 영국 런던의 크레이븐 코티지에서 열린 EPL 13라운드 풀럼과의 경기에서 동점골을 성공시킨 뒤 환호하고 있다.

주양 고메스와 경합한 해리 윌슨이 넘어지면서 풀럼에 또 페널티킥을 허용했고, 윌리안이 다시 키커로 나서 멀티 골과 함께 풀럼의 3-2 승리를 완성했다.

중로 휘슬이 울리기 직전 팀의 마지막 공격에서 공을 잡은 황희찬은 페널티킥 모서리에서 회심의 오른발 슈팅을 날렸으나, 아쉽게 크로스바 위로 살짝 땀다.

2023년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에 순천 출신 ‘마라톤 영웅’ 故 남승룡

2023년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으로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동메달리스트인 故 남승룡이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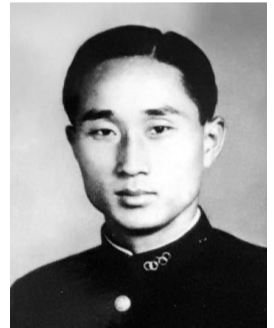
대한체육회는 최종 후보자 故 남승룡, 故 엄복동(자전거), 이흥복(스포츠 공헌자), 故 최동원(야구) 4명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남승룡을 2023 스포츠영웅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순천 출신인 남승룡은 1936년 열린 제11회 베를린 올림픽에 손기정과 함께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한 우리나라 ‘마라톤 1세대’다.

1932년 제8회 조선 신궁 경기 대회 마라톤 1위, 1933년 제20회 일본 육상 경기 선수권대회 마라톤 2위 등 업적을 이뤘다.

194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선 서운복의 페이스 메이커로 함께 뛰며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는 등 육상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스포츠영웅 선정위원회(위원장 김승철)는 남승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선정된 故 남승룡. /연합뉴스

룡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육상인으로 서 어려운 시대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고 올림픽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준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은 추천위원, 체육단체, 출신 기자, 대한체육회 원로회원이거나 대상으로 후보자 접수와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 4명을 가린 뒤 업적 평가와 국민 지지도 조사 결과를 참고해 스포츠영웅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했다.

2023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헌액식은 12월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코너킥·프리킥도 VAR? ...국제축구평의회 확대 논의

“축구가 마라톤 될라” 지적도

축구 규정과 경기 방식을 결정하는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비디오 판독(VAR)의 범위를 프리킥·코너킥·두 번째 경고 판정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영국 일간지 더선은 28일(한국시간) “IFAB가 다음 시즌에 적용될 VAR 범위 확대를 위한 협의에 들어간다”라며 “특정, 페널티킥, 퇴장 판정에만 쓰였던 VAR의 범위를 프리킥, 코너킥, 두 번째 경고 판정까지 확대할 전망이다”라고 전했다.

축구계에선 2013년부터 페널티킥과 오프사이드 판정에 대한 VAR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제축구연맹(FIFA)도 이에 동조해 2014년 IFAB에 VAR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스템 도입에 급물살을 탔다.

이후 2016년 8월 IFAB가 VAR 도입을 허용하고, 그해 12월 FIFA 클럽월드컵에 VAR이 첫선을 보였다.

2017년부터 한국프로축구연맹과 프랑스 리그 양이 도입하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도 2019-2020시즌부터 적용하면서 VAR은 빠르게 축구에 스며들었다. 하지만 VAR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VAR 도입으로 경기 시간이 지나치게 늘어지는 데다, 주심과 비디오 판독 심판의 소통에 문제가 발생해 오심을 범하는 사례도 줄지 않아서다.

지난 7일 토트넘-첼시전에서 9차례 VAR 체크, 5차례 골 취소, 2명 퇴장, 추가시간 21분 등 VAR 판정으로 경기 시간이 심하게 늘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가운데 VAR이 기존 득점, 퇴장 등 ‘경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넘어 코너킥과 프리킥 판정으로 범위가 늘어나면 잦은 경기 지연으로 재미를 반감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 때문에 더선도 “VAR 범위가 확대되면 축구는 2시간짜리 마라톤 경기가 될 것”이라며 “심판의 권한은 더 약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서울의 봄, 더 마블스
- 2관 싱글 인 서울
- 3관 싱글 인 서울, 더 마블스
- 4관 서울의 봄, 스노우 폭스: 설매개가 될 거야!
- 5관 서울의 봄
- 6관 서울의 봄
- 9관 괴물
- 7관 싸네컸름 프레디의 피자 가게
- 8관 싸네컸름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30일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3년 광주상설공연(11월)
 일시 : 2023-11-01(수) ~ 2023-11-30(목)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GAC 기획공연 손민수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2023-12-03(일) 오후 4시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35

즐거움 문화산책